

중국 연변 조선족 집합주택의 취사 및 식사공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Space for Cooking and Dinning of Multi-family Housing at Yanji City in China.

김종영*
Kim, Jong Young

Abstract

Recently, the space organization of Korean-Chinese houses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territories. The characteristics of eating and dinning space for Korean-Chinese Multi-family Housing are as follows ; i) The most obvious change in Korean-Chinese urban housing style was seen in kitchen space, which can be classify three types such as traditional type, improved type, and LDK type on the bases of heating and cooking method. ii) Special feature of Korean-Chinese housing in Yanji city was that kitchen fulfilled important functions such as heating, cooking, dinning, sleeping, bathing and washing. Since then, each function was separated and functions of kitchen were cut down after all. iii) The arrangement of kitchen space have change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heating fuel, heating system, equipment, related policy, etx. Multi-function kitchen discovered only in Yanji had lasted until 1980's by equipping heating floor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sit-down living style. In 1990's, this kitchen style was prohibited legally, and the balcony area of kitchen widened due to the abolition of outdoor storehouse for foodstuff.

Keywords : Korean-Chinese, Apartment, Cooking and Dinning, Yanji City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이하 연변지역으로 약칭)는 중국 조선족의 집거구로서 연길, 용정, 화룡, 도문시는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이 지역에 사는 조선족들은 한족(漢族)이나 다른 소수민족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우리 주거문화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들면, 구들이라든가 온수바닥난방 같은 것은 한족들의 입식 주거와 조선족의 좌식주거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 민족 고유 주거문화를 존속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발표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 V.16, N.6.)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조선족주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민족인 조선족의 주거를 조사·분석하여 자료화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과 우리 주거가 이민족 주거환경 속에서 소멸, 동화되거나 변용된 것은 무엇이며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찰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주거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그 하나의 세부과제로서 연변지역 집합주택의 취사 및 식사공간에 관한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취사 및 식사공간의 유형과 그 특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집합주택 평면형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조선족 주거문화를 연구함에 있어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여기서 조선족 집합주택이라 함은 조선족을 위해 공급된 평면형 또는 조선족·한족 공용의 것 중 조선족이 살고 있는 주호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 앞서 조선족 주거에 관한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연구를 위해 1998년 여름과 겨울, 2차에 걸쳐 연변의 연길시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주방 및 식사실의 평면구성 실태 및 취사·식사활동을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변의 다른 도시들(용정시, 화룡시, 도문시)의 집합주택도 예비 조사하였는데 이들 도시간에는 평면형이나 생활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연구의 본조사는 연길시의 집합주택

*정회원, 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표 1. 조사의 개요

조사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대상
기초조사	주호 평면형	24개 평면형- 앞서 조사된 자료분석
예비조사	주호 각 공간 구성 및 생활	연길시, 용정시, 도문시, 화룡시. 각 4호씩 실태조사
본조사	· 부엌, 주방, 식사실의 형태, 크기, 배치 · 취사· 식사공간이 용실태 · 식생활 조사	· 24개 평면형 1950년대 2개 1960년대 3개 1970년대 1개 1980년대 8개 1990년대 10개 · 식생활조사: 74세대를 대상으로 관찰 및 면담조사.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평면형은 1950년대 2개, 1960년대 3개, 1970년대 1개, 1980년대 8개, 1990년대 10개로 총 24개였다. 아울러 각 평면형 2-4세대, 총 74세대를 대상으로 식생활실태 및 공간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의 내용, 대상은 표 1과 같다.

또한 앞서의 연구와의 연계성을 위하여 조사 대상 평면형은 물론 기호, 도표 등도 가능한 한 앞선 연구와 일치시켰다.

II. 연길시 집합주택 평면형의 개요

연길시는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중심도시로서 인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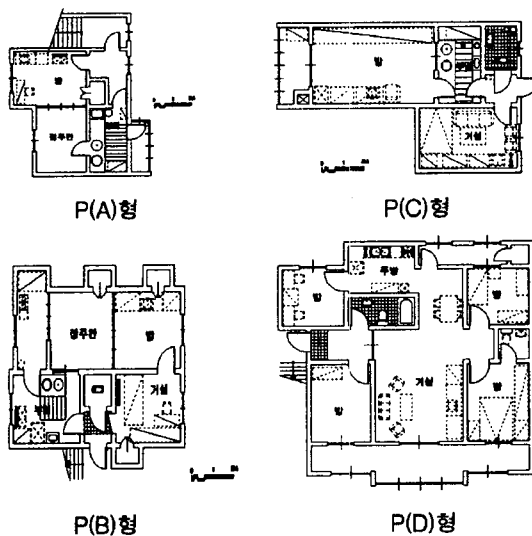


그림 1. 연변 집합주택의 평면유형의 예

약 59.5%가 조선족이다. 주거형태는 1995년 현재 집합주택이 전체의 약 75%정도였다. 집합주택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부터인데 현존하는 평면형태를 실의 종류와 구성, 배치 및 연결방식 등을 토대로 그 유형을 분류한 결과 그림1과 같이 크게 4개의 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여기서 P<A>라고 한 것은 유형<A>라는 것을 기호로 표시한 것임).

P<A>형: 초창기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부엌과 정주칸,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과 각 실의 연결은 부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민가의 평면형이 집합주택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부엌과 정주칸이 하나의 셋트화되어 있다.

P형: P<A>형에서 방과 부엌이 분리되고 거실과 위생실(변소)이 도입되어 집합주택 평면형으로서의 기본 골격을 갖추기 시작한 형태이다. 출입은 현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P<C>형: P형에서 거실 및 화장실의 면적이 확대됨과 아울러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명확해진 것이다.

P<D>형: 이 형은 조선족 평면형의 핵심이었던 부엌+정주칸 부분이 사라지고 거실중심의 소위 L+DK, LDK 형으로 구성된 것이다. 평면은 홀이나 중복도에서 각 실과 연결되던 폐쇄된 형태에서 벗어나 거실중심의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방은 중앙집중식 라디에터 또는 온수바닥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III. 연변 조선족의 식생활 실태분석

1. 조선족의 식생활 개요

조선족 음식은 밥이 주식이다. 부식으로는 국, 김치, 된장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식습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한족들의 음식문화도 일부 받아들여 밥 이외에 여러 가지 밀가루 음식도 먹고 있으며 부식에서 한족식 요리도 만들어 먹는다. 특히 잔치나 연회시에는 조선족 요리와 한족식 요리(볶음채)가 같이 나온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촌마을이 조선족들끼리 집거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비해 도시는 섞여 살고 있으며 외식의 기회가 많고 식단이 보다 다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식사 풍습에서도 일부 한족 풍습이 들어와서 요리나 채접시를 짝수로 하는 것 등도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생활이 현대화되면서 식생활은 세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음식의 질적인 향상으로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변하고 있으며, 둘째는 취사설비의 가스화, 전기화로 가사노동이 감소되고 있으며, 셋째는 식생활방식이 점차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

	구분	빈도(%)				
		0	25	50	75	100
김치	A	68.9				
	B	23.3				
	C	6.8				
된장간장	A	37.8				
	B	50.1				
	C	8.1				

그림 2. 김치·된장 담그기 실태

A: 집에서 담는다. B: 시장에서 구입한다. C: 기타 (부모집에서 등)

다는 점이다¹⁾. 실제로 음식 가공업이 발달하여 시장에서 가공된 식품을 사다 먹거나 패스트푸드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사노동의 절감은 물론 취사나 식사공간의 구성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 조선족 식생활의 실태

조사대상 74세대 중 조선음식을 주로 먹는 세대가 58세대(78.4%), 조선음식과 한족음식을 혼용하는 세대가 13세대(17.6%), 한족음식 위주가 3세대(4%)정도였다.

한편 김치, 된장 담그기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① 김치: 74세대중 김장 김치를 집에서 담그는 경우가 51세대(68.9%),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18세대(24.3%), 친정이나 시댁, 친척 등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5세대(6.8%)였다. 이 중 집집마다 옥의 움(저장고)이 있는 경우는 모두 김치를 담고 있다. 한편 연중 수시로 조금씩 담가먹는 김치는 집에서 담기도 하고 일부 사먹기도 하는 등 사정에 따라 병행하고 있다. 이는 냉장고가 보편화되면서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② 된장: 조사세대 중 된장을 집에서 담그는 경우가 28세대(37.8%), 시장에서 사다 먹는 경우가 40세대(54.1%), 기타가 6세대(8.1%)였다. 김치에 비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1년에 한번 담아 장기간 보관해야 하고 김치에 비해 자주 밥상에 오르지 않는 것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움이 없는 세대의 경우 좁은 발코니에 큰 된장독을 둘 경우, 냄새가 나고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흠이라고 했다.

③ 기타 반찬: 두부나 채소, 고기류 등 다양했다. 한국음식과 비슷한 면이 많으나 기름에 튀긴 것들이 많았다. 이는 한족음식의 영향으로 보이며 기름은 주로 콩기름을 사용하고 있다.

3. 주방 가전제품의 보급 실태

주방 가전제품의 보급율을 살펴보면, 냉장고는 91.9%(68세대), 전기밥솥 97.3%(72세대), 전기 오븐 21.6%(16세대), 가스렌지 90.5%(67세대)정도였다. 이것은 취사 및 식사공간의 구성형태와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초창기에 보급된 정주칸형 주택이나 분리형에서는 부엌에 걸린 솥과 전기밥솥을 혼용하고 있는데 난방이 필요없는 여름철에는 전기밥솥을 사용하고 난방을 위해 온돌에 불을 댈 때는 재래식 솥에서 밥을 하고 있다.

4. 취사방식

현재 주된 취사연료는 가스와 전기이다. 가스는 가정용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바닥에 온돌이 깔린 초기의 집합주택에서는 석탄과 가스, 전기를 병용하고 있다. 이 경우 솥은 대개 2개가 한 아궁이에 걸려 있으며 3개까지 걸려있는 경우도 있다. 석탄은 부엌 널판 아래에 보관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보통 하루에 2회정도 불을 피우고 있다. 라디에터나 바닥 온수난방의 경우는 취사연료로 LPG와 전기를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V. 취사 및 식사공간의 실태분석

여기서는 취사 및 식사공간 구성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조사대상 24개 평면형은 그림 3과 같다.

부엌, 주방의 규모 및 형식

여기서 취사 및 식사공간과 관련되는 부엌, 주방에 대해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중심으로 용어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부엌(WK): 재래식으로 민가의 부엌형태와 같이 아궁이에 불을 때어 취사와 난방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정지(또는 정주)라고도 한다.

·주방(K): 현지에서는 추팡 또는 주방이라고 하며 초기의 집합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이다.

표 2는 앞선 연구(평면구성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24개 평면형을 대상으로 각각의 부엌, 주방면적, 주호면적에 대한 면적비, 건축년도, 평면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엌, 주방의 면적: 전체적으로 보면, 7.4-14.2 m²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1950-70년대는 7.4-9.5 m², 1980년대는 6.1-11.1 m², 1990년대는 9.5-14.2 m²로 점차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주호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각 공간의 면적이 늘어난 것이라 볼 수 있을

1) 민속사, pp63-64. 중국 조선민족 식생활풍습의 변혁추세에서 1990년대 이후의 식생활 실상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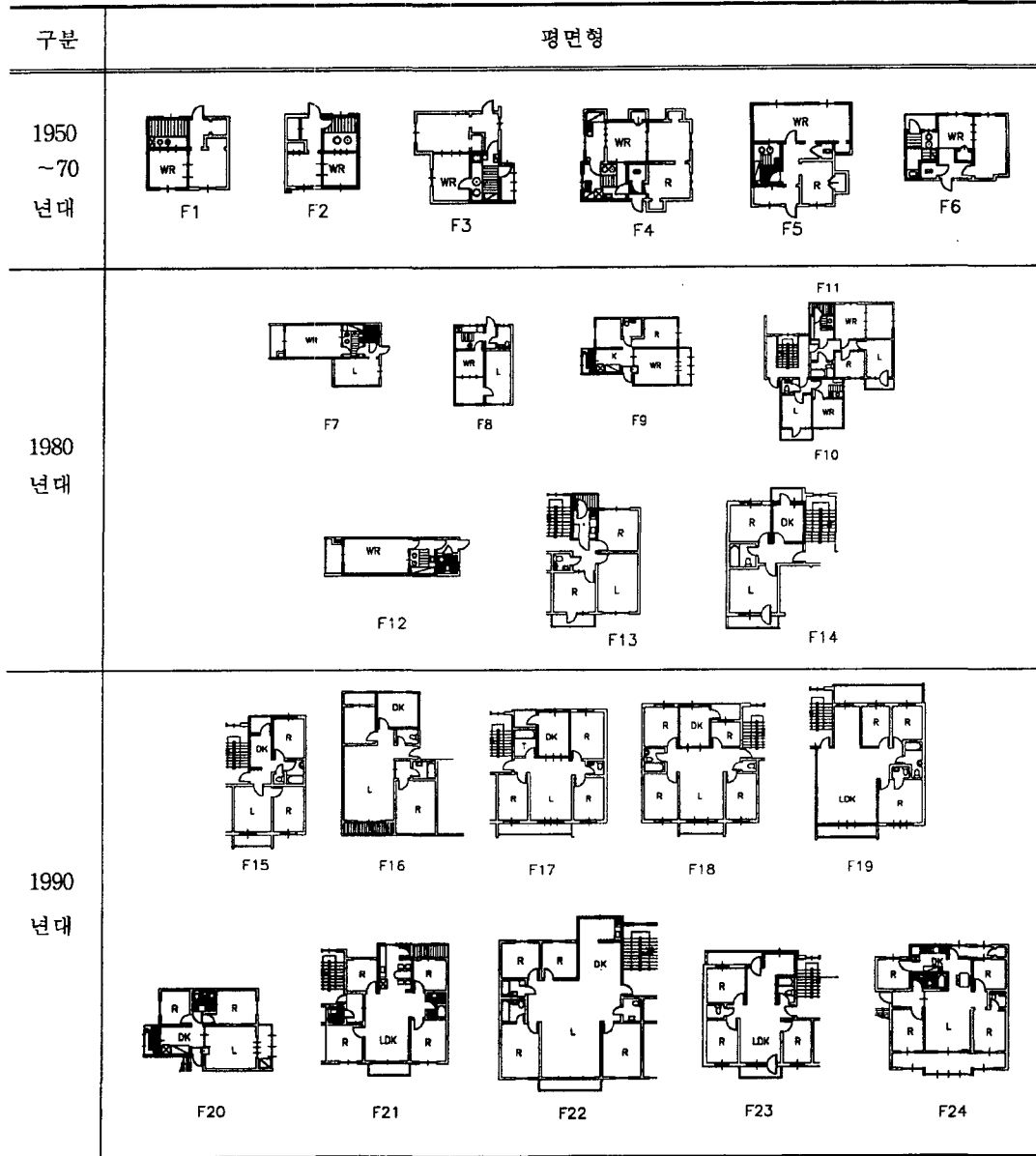


그림 3. 평면의 실태

온돌방 : WR, 방 : R, 온돌부엌 : WK, 주방 : K, 식사실 : D, 거실 : L, 변소 : WC, 화장실 : T

것 같다.

② 주호면적에 대한 부엌, 주방면적의 비: 면적비를 살펴보면, 9.1-29.7%로 크게 편차를 보인다. 이를 시대 별로 보면, 1970년대까지는 10.8-29.7%로 평균 18% 정도이고 1980년대에는 9.5-21.2%로서 평균 15%정도이며, 1990년도에는 9.1-20.5%로서 평균 14%정도이다. 이는 초창기에는 좁은 주호면적에서 부엌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가 점차 일정규모비로 정착됨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③ 부엌, 주방의 형식: 크게 정주칸형식과 주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초창기에는 정주칸식, 1980년대 일부와 1990년대 에서는 주방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를 토대로 다음 장에서 취사 및 식사공간의 구성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취사·식사공간의 실태

기호	주호 면적 (m ²)	부엌, 주방면적 (m ²)	면적비 (%)	주된식사 장소	평면구성
F1	30	8.9	29.7	정주칸	2WR, WK
F2	32	7.4	23.1	정주칸	
F3	47	8.2	17.4	정주칸	2WR, WK
F4	60	9.5	15.8	정주칸, 온돌방	2WR, WK, L, WC
F5	65	7.0	10.8	정주칸, 온돌방	WR, WK, L, WC
F6	42	6.8	16.2	정주칸	2WR, WK, L, WC
F7	58	7.7	13.2	정주칸	WR, WK, L, T
F8	45	7.8	17.3	정주칸	2WR, WK, L, T
F9	64	6.1	9.5	부엌	WR, R, L, WK, T
F10	32	6.5	20.3	정주칸	WR, WK, L, T
F11	65	11.1	17.0	온돌방	2WR, WK, L, T
F12	36	6.9	13.2	온돌방	WR, WK, T
F13	42	5.1	11.2	방, 거실	2R, K, L, T
F14	42	8.9	21.2	주방, 거실	R, DK, L, T
F15	62	11.7	18.9	주방, 거실	2R, DK, L, T
F16	63	12.9	20.5	주방, 거실	2R, D, K, L
F17	90	12.5	13.9	주방, 거실	3R, DK, L, 2T
F18	105	11.1	10.6	주방, 거실	4R, DK, L, T, W
F19	102	10.2	10.0	주방, 거실	3R, LDK, 2T
F20	74	10.8	14.0	주방, 거실	2R, DK, L, T
F21	104	9.5	9.1	주방, 거실	4R, LDK, 2T
F22	120	21.6	18.2	주방	4R, DK, L, 3T
F23	78	13.8	17.2	주방, 거실	3R, LDK, 2T
F24	148	14.2	9.2	식사실	4R, DK, L, 2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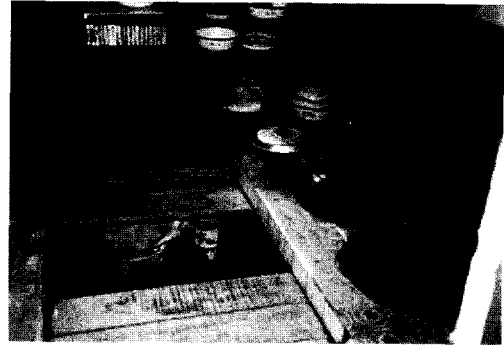


사진 1. 정주칸형의 부엌에

의 유형을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여기서 각 유형별 공간구성과 취사 및 식사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주칸형

이 형은 초기의 집합주택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민가에서의 평면형태가 단순화되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1은 정주칸형 부엌의 예이다.

평면의 중앙에 부스계(부엌)와 정주칸이 있고 거기서 좌우로 방(옷방, 고방)과 창고(또는 외양간)가 연결되는 형태이다. 여기서 정주칸이라 함은 부뚜막과 연결된 일종의 온돌방으로서 방과 주방의 복합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외부에서 부엌출입문으로 들어서면 신병은 공간(바당)이 있고 거기서 정주칸으로 올라가는데 대개 높이는 30 cm 정도이다. 아궁이 부분은 바닥면에서 80-90 cm 정도 파내려가서 아궁이를 설치하는데 크기는 대략 (1.2-1.5 m)*(1.5-2.1 m) 정도이다. 연료는 거의 대부분 석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사와 난방을 한다. 아궁이의 불길은 구들을 통해 정주칸과 방을 데우고 굴뚝을 통해 외기로 빠져 나가는데 한 아궁이에 대개 2-3개의 솥을 걸고 있다. 부뚜막 윗면과 정주칸의 바닥면은 같은 높이이며 단지 부뚜막면에는 장판을 깔지 않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불을 때지 않을 때는 아궁이

V. 취사 및 식사공간 평면구성 유형과 특성

앞서 24개의 평면형에서 취사 및 식사공간의 형식, 각 실과의 연결방식, 난방방식 등을 중심으로 공간구성

표 3. 평면유형의 분류

유형	공간 구성의 특성	주된 난방방식		
		온돌(구들)	라디에터	온수바닥난방
정주칸형	부엌과 방이 일체가 된 형으로 전통민가의 평면구성과 유사함.	F1, F2		
부엌 정주칸 분리형	기본적으로는 F1, F2와 같으나 부엌과 방이 분리됨.	F3, F4, F5, F6, F7, F8, F10, F11, F12	F9	
주방형	주방이 별도로 독립되고 여기서 취사만 하는 경우와 식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다.		F13, F14, F15, F16	
LDK형	거실중심의 평면으로서 주방, 식사실, 거실이 한 공간으로 구성됨.		F17, F18, F19, F20, F22	F21, F23, F24



사진 2. 부엌/ 정주칸 분리형의 부엌에



사진 3. 주방형의 예

윗부분을 널판으로 덮어서 정주칸 바닥면과 같은 높이로 하여 한 공간으로 사용한다. 식사는 바닥에 앉아서 하고 취사 역시 쪼그려 앉아서 한다. 조선족이 좌식생활을 해 온 것도 이러한 온돌구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② 부엌/정주칸 분리형

이 형은 부엌과 방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준 것이 특징이다. 부엌과 방의 연결은 여닫이나 미서기문으로 하며 기본적으로는 정주칸형과 같다. 사진 2는 F7의 예이다.

정주칸형과의 차이점은 식사공간이 부엌에서 분리되며 점차 부엌에 싱크대가 설치되므로서 부엌의 입식화가 나타나는 형이다. 취사는 좌식과 입식이 혼용되며, 식사는 방바닥에 앉아 좌식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③ 주방형

앞서 ①②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로서 입식이다. 사진 3은 F13의 예이다.

이것은 온돌구조에서 라디에터 난방방식으로 변함에 따라 나타난 형태이다.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식탁이나 간이 탁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족들간의 식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대부분 주방에 서비스 발코니가 붙어있다.

표 4. 각 유형의 변천과정

공간구성 유형	195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정주칸형			
부엌/정주칸 분리형			
주방형			
LDK형			
취사연료	나무, 석탄	주로 석탄, 전기, 가스병용	전기, 가스
난방방식	온돌(구들)	온돌, 라디에터	온수바닥난방, 라디에터
부속실	일부 평면에 부엌 발코니	부엌, 주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다용도실
별도의 저장공간	세대마다 울(식품저장실)제공	80년대 중반까지 울제공	제공없음

④ LDK형

이 형은 거실중심의 평면으로서 주방, 식사실, 거실이 일체화된 형이다. 이것은 처음에는 라디에터 방식에서 일부 나타나다가 1990년대 이후 온수 바닥난방이 도입되면서부터 보편화되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미서기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전체 평면구성은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한 면이 많다. 주방에는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식탁이 있다. 식사는 대부분 식탁에서 한다.

VI. 취사 및 식사공간의 변천과 전망

취사 및 식사공간의 변천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여기서 연대는 195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구분하였다. 이는 집합주택 초기에서 문화혁명 말기(1976년)까지, 개혁 개방기(1980년대), 시장경제 도입기(1990년대부터)의 구분을 고려한 것이다.²⁾

표 4에서 각 유형이 사용되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정주칸형은 집합주택 도입초기의 것으로 주로 1970대초까지 나타난다. 본 조사시점까지 연결시 일부지역에 남아 있었는데 현재는 재개발되어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어 부엌/정주칸 분리형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나타나는데 후반부의 것은 싱크대가 설치되어 주방의 입식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주방형은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다. 이 시기가 개혁·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의 양적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주거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아울러 집합주택에서 온돌 사용이 금지되고 옥외저장고인

2) 수희림외, 발전도상의 연변, p16-32.

음의 제공이 중단된 시기이다. 이로써 종래 부엌과 온돌방이 일체형으로 셋트화되어 있던 평면형에서 실의 구성이 자유롭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평면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LDK형은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형으로서 온수바닥난방이 도입되고 주방이 입식화된 형이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지적한 취사연료의 변화, 난방방식의 변화, 법적·제도적 변화, 의식상의 변화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주방용 가전제품의 보급이 늘면서 보다 큰 스페이스의 주방이 요구되는데 실제 설계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취사 및 식사공간은 규모 면에서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며 보다 다양한 공간구성을 갖게 될 것이다. 최근의 공간구성은 LDK 또는 L+DK 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온수 바닥난방방식과 아울러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방 수납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부족한 편이다.

이상 취사 및 식사공간의 구성형태를 살펴 보았는데 연구결과 취사 및 식사공간이 조선족 집합주택의 평면 구성을 결정짓는 핵심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VII.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족 집합주택의 취사 및 식사공간의 공간구성형태를 분석하여 그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변천과정을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연구는 연길시의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4개 평면형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의 식생활은 일부 한족식의 음식문화가 유입되기는 했어도 대체로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문화를 존속하고 있다. 즉 주식으로는 밥, 부식과 반찬으로서는 국, 김치, 된장, 한족식의 볶음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식생활과 비슷하다. 또한 냉장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의 보급율이 90% 이상에 이르고 취사연료도 가스, 전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둘째, 부엌, 주방공간의 평면구성형태를 분석한 결과 정주칸형, 부엌·정주칸 분리형, 주방형, LDK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여기서 정주칸형은 부엌과 정주칸(방)이 일체화된 형으로 취사 및 식사가 모두 좌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분리형은 기본적으로는 정주칸형과

유사한데 부엌과 정주칸이 분리된 형으로 좌식과 입식이 혼용된 형태이다. 또한 주방형은 입식으로서 주방이 독립된 공간을 갖고 있으며 식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LDK형은 한국의 것과 유사한 거실중심형 평면으로서 주방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 형이다.

셋째, 이들 각 유형을 나타난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정주칸형은 집합주택 도입초기 즉, 1960년대 중반까지, 부엌·정주칸 분리형은 그 이후 1970년대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방형은 198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는 라디에타의 보급으로 난방방식이 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LDK형은 1990년대 이후에 도입된 것으로 온수바닥난방의 도입, 한국과의 교류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형태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취사 및 식사공간의 구성형태가 조선족 집합주택의 평면구성을 결정짓는 핵심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주로 공간구성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취사 및 식사행위, 주방관련 기구 및 가구 등 보다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김진우,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 민가건축 초보탐구, 연변대학논문, 1993
2. 김영모(편), 중국 조선족 사회 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2.
3. 김종영,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 집합주택의 평면구성형태 및 그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000
4. 민족출판사, 봉화 (중국 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3), 북경, 1989.
5. 박경휘, 조선족민속연구, 료녕민속출판사, 瀋陽, 1987
6. 수희립 외, 발전도상의 연변, 연변인민출판사, 1990
7. 심혜숙, 중국조선족 취락지명파와 인구분포, 연변대학출판사, 연길, 1993
8.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집필소조,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연길:연변인민출판사, 1984.
9. 연길시통계국, 95년 연길통계년감, 중국: 중국통계출판사, 1995
10. 울산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 장재춘,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5
11. 이재진, 中國안의 朝鮮族, 청계연구소, 서울, 1988
12. 조선족역사적편집위원회, 풍광(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7), 중국:민족출판사, 1993
13. 중국조선족청년학회, 중국조선족이민실록, 연변인민출판사, 1992
14. 한상복, 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1993